

‘걸합기식’ 행감...시의원들 지역 현안 이슈 파이팅 부족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집행부와 갈등·불통 여전

행자위·산건위 행감은 돋보여

광주시의 시의회 무시 비판도

제9대 광주시의회 하반기 첫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마무리됐지만, 피감기관인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 ‘자료 제출 부실’이라는 이유로 잦은 파행을 빚은 데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정치적 힘겨루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 집행부인 광주시가 자료 제출 부실 등에 대한 사과를 회피했던 모습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의 김광진 전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한 ‘GGN 글로벌광주방송 월 600만원 이상 출연료 특혜’ 지적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테크노파크 성범죄 직원 녹장 징계 지적 등은 이번 행감에서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시와 산하기관,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한 행감을 마치고 15일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집행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올해 행감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걸합기식’ 행감이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감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한 ‘이슈 파이팅(issue-fighting)’이 있었지만, 이번 행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군 공항 이전, 복합 쇼핑몰, 인공지능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 선점’을 못하면서 단순하게 광주시 산하 기관에 대한 ‘자료 부족, 허위 자료 제출, 자료 오기’ 등의 이유로 감사를 두 차례 중단하는 파행을 빚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 산업건

설위원회는 허위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통합공항공로국에 대한 행감을 중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각 기관의 부실·허위 제출 자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모든 책임을 물어 행정부시장에 대한 증인 출석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부시장의 사과를 받지 못하면서 시의회 위상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건위는 지난 11일 먼저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과를 요구했지만 고 부시장이 사과하지 않았고, 고 부시장은 다음날인 12일 행자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하면서 ‘늦장 사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 행감에 대한 안일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와 시 산하기관이 자료 부실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시의회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시의회 내부 비판이 있었고, 반면 시의원들은 이를 정치적 역량으로 풀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정치적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수정 의장은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만약 집행부가 진정으로 시정을 위한 공동 책임 주체로서 의회를 존중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이를 외면한 채 마치 의회의 태도가 문제인 듯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행감은 철저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난 1년간의 광주시 행정에 대해 감사를 하고, 주요 지역 현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 제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는 그러한 현안 질의 등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 부실과 허위 답변 등을 한 피감기관의 태도도 문제지만, 행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한 엉뚱한 질문을 일삼는 시의원들 역시 ‘시민 대변인’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신문사랑 역사신문 만들기 NIE 수상작 전시



광주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제5회 신문사랑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광주 두암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강현 교사의 ‘두암제트일보’를 비롯해 최우상 수상작인 장흥장평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서희원 교사의 ‘그날의 역사’, 광주 중앙초등학교 4학년 1

반 학생들과 박한솔 교사가 힘을 합쳐 제작한 ‘중앙행복신문’ 등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광주일보사는 2024년도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광주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사업을 진행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G-패스” 카드디자인 투표해 주세요

22일까지 광주우선서 설문·투표

광주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광주G-패스’를 상징하는 교통카드 디자인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광주우선(ON) 설문과 오프라인 투표를 함께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G-패스’는 2025년 1월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가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20~64%를 환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광주우선(ON)에서 시민 정책참여단 3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성인용 교통카드 디자인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상무역·광주송정역·금남로4가역·동명중학교·시정

등 5개소에서 직접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우선(ON) 누리집(<http://gwangjuon.gwangju.go.kr>)에서 ‘시민정책참여단’에 가입한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도안 순으로 1~3위를 정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카드 디자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G-패스 카드는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 지정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뒤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어린이는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역기업 맞춤형 AI반도체 개발 속도낸다

에임퓨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역수요기업 참여 첫 기술교류회
인공지능·에너지 등 광주 전략산업 연구내용·협업 방안 등 논의

광주시가 지역 기업 맞춤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서구 유담부티크 호텔&레지던스에서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한 ‘광주형 AI반도체 개발을 위한 첫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술교류회에는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 김성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 실장을 비롯한 두영실업㈜, ㈜알파노스, 엔에이치네트웍스㈜, 인트플로우㈜, ㈜호그리언어 등 지역 수요기업 5개사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반도체 설계(팹리스) 분야의 세계적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에이직랜드에 이어 10월 칩리스기업인 에임퓨처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지역 수요기업의 제품에 광주형 AI반도체 칩을 적용·제품화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팹리스(Fabless) 기업은 반도체를 직접 제조(fabrication)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이며, 디자인하우스(Design House) 기업은 팹리스에서 설계한 반도체 도면을 생산공정(파운드리)에 적당 제조용 설계도면으로 재설계하는 기업이다. 칩리스(Chipless) 기업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아이디어·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설계·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이날 기술교류회에서 ㈜에임퓨처와 지역 수요기업 5개사는 상호 보유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 광주형 AI반도체 개발 및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임퓨처는 2020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LG전자 미주연구소에서 인공지능 핵심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모여 만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으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해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시스템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IP)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 인착 팹리스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기술이 실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팹리스기업이 광주에 오면서 광주 AI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고가의 외국산 반도체 칩에 의존했던 지역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게 돼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사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